

소 건 서

회원과 함께 빛나는 대한환경공학회!

- ✓ 회원들에게 프리즘이 되어주는 학회
- ✓ 사회에 전문가의 울림을 주는 학회
- ✓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학회

존경하는 대한환경공학회 회원 여러분,

제24대 회장후보로 지원하게 된 한국과학기술원 건설및환경공학과 강석태입니다. 1995년 학회회원으로 등록한 이후, 대한환경공학회는 존경할 수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동료들과, 꿈을 같이 이뤄나가는 후학들이 있는 곳이었습니 다. 역대 회장님, 이사님들과 함께 총무이사, 학술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국제위원 장으로 대한환경공학회와 함께 하는 동안 학회는 제게 마치 투명하여 보이지 않 지만 나무를 크게 하는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기후적응과 AI 시대에서 대한환경 공학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을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제24대 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 회원들에게 프리즘이 되어주는 학회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숨어있던 다양한 색들이 나타나듯이, 대한환경공 학회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들이 가진 ‘다양성’입니다. 저는 제19대 총무이사 및 제21대 기획위원장을 수행할 당시, 학회규정과 사무국 규정을 명문화하고 정 비하여 학회 행정서비스 및 신입회장의 업무공백을 개선한 것처럼, 회원의 다양 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들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학회 사무국 안정화:** 최근 잦은 학회 사무국의 인적교체는 회원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무국 직 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 사무 여건, 직급, 복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 무국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학회 재정자립도 향상** : 현재 학회의 재정은 회비, 행사 잉여금 및 과제 관리비에 의존하고 있어, 학회규모에 비해 재정이 매우 취약합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회비 납부율을 25%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영문학술지의 출판사 외주추진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석기기/환경컨설팅/환경소재 등 환경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기업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 **원스탑 회원 서비스** : 최근 개발된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여 사무국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회원들의 경/조사, 동정 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가능한 유휴 연구장비/장치를 폐기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기업회원 매칭서비스** : 기업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할 때, 해당 전문가를 매칭시켜 컨설팅하는 matching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회에 전문가의 울림을 주는 학회

지구의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과거에 겪지 못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는 환경 정책의 현실은 학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학회는 이론이나 실증에 통달한 다양한 전문가 회원들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은 사회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 여년간 환경공학의 선배들이 쌓아 올린 전문성이 사회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대한환경공학회 fellow/master 제도 운영** : 학회에서의 권위는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믿는 바, 대한환경공학회의 fellow (학계) 및 master (산업계) 추진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는 객관적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지회와 연계한 전문가그룹 활동 강화** : 대한환경공학회가 보유한 자산 중 하나는 전문가그룹입니다. 전문가그룹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지회의 운영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지회와 함께하는 세미나, 지회 현안사업 기획, 소규모 전문가그룹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달의 우수논문상 신설** : 환경분야는 전통적인 학과를 넘어 모든 학문분야의 공통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야에 관계없이 환경공학분야와 관련된 우수한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당해연도 회원으로 전문가 keynote 발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환경이슈 토론회 및 기고 활성화** : 환경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울림이 있도록 사회와 다양한 소통을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학회의 자랑이신 고문님들과 명예이사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산업이사님들의 참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학회

현재는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은 반면, 정작 환경공학을 전공한 회원들의 취업이나 연구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의 영역과 타 학문분야와의 영역이 겹치면서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취업과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오히려 환경공학의 지경을 확대하여 미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대한환경공학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학회의 오랜 정통성과는 별개로, 22대와 현 23대 회장님을 거치면서 대한환경공학회는 20~30대의 MZ세대 신진연구자들이 활발히 유입되었습니다. 기존회원과 신진회원사이의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두 세대와 모두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앞으로도 흔들림없는 학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Post-위매 프로젝트: 2012년 시작했던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위매 (Water Matters)를 계승하는 'Post-위매' 프로젝트를 기획하겠습니다. Post-위매는 미국의 Gordon conference처럼 최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여, 환경공학의 지평을 넓히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학자 읽기: 사회각층의 미래 전문가들의 강연과, 그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을 출마하는 저는 지천명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간 훌륭하신 회장님들의 리더십으로 대한환경공학회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최대 학회로 자리매김했고, 평의원 제도가 정착되어 이제는 회원들이 주인이 되어가는 학회로 또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환경공학회는 이미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완성된 학회가 되어서,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 소견이 불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대한환경공학회와 같이 한 지난 10 여년을 돌아보며, 저는 저를 성장시켜준 빛과 같았던 대한환경공학회에 작은 빛을 되돌려 주고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모쪼록 후학들의 참여와 성장이 지속되는 대한환경공학회를 소원하며, 회원님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대한환경공학회 24대 회장 후보

강석태 배상